

을 남기는 것이 그의 그림의 특징이다. 보면 볼수록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어떤 의식의 심부름으로 다가오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수십년간 사생으로 담금질된 기량이 밑거름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작품의 탄생과정은 나그네의 여정처럼 어렵고 힘들다. 그가 넓고 큰 길은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런 작품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작가는 지금도 좁은 길을 따라 진액이 빠지는 듯한 수고를 그림에 쏟아 붓고 있다.

이영희, **살터길** 2002-1-2.51x60.7cm, 캔버스에 유채

이영희의 그림은 옛적에 익히 보았던, 한적한 시골길을 연상시킨다. 이제는 웬만한 시골의 외진 곳까지도 포장이 되어 있어 예전과 같은 정취를 느끼기 힘들지만 지금도 산간벽지를 가면 접할 수 있는 정겨운 풍경이다. 그의 그림은 약간의 축약과 번움을 거치지 않으면 대체로 실제의 모습을 둔 실경(眞景)이다. 주위의 갈대와 야생의 들꽃에서부터 기묘으로 배마른 땅, 불탄 흔적들, 비포장길의 돌맹이들, 길가의 들꽃, 그리고 하늘이 현장감 나게 재현된다.

작가는 실물과 마주할 때 느끼는 개인적인 환상이나 감정이 임을 제어한 채 자연경관을 차분히 옮겨내고 있다. 현란한 솜씨로 관자의 눈을 빼앗기는 쉬울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을 움켜잡게 하는 것은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그는 눈에 익은 정겨운 풍경 가운데 보는 이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케 하는 여운

**이영희** 중앙대학교 회화과와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상계대학교 미술교육사(미술사)를 전공했다. 12차례의 개화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초대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및 신미술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영희, **하늘로 가는 도정**

6 서성록 (인동대 미술학과 교수)

우리에게 엄청난 육체적 노고와 심리적 부담감을 요구한다. 세까만 터널 끝에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시선을 돌리면 아주 청명하고 깨끗한 하늘이 보인다. 그러나 그곳은 눈매중으로 보아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곳에 닿으려면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지불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작가는 색채와 구도를 단순화하여 길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화면을 이등분하는 것은 처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회화로서는 가끔씩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그가 이처럼 길을 강조하는 것은 그림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그건 그의 그림제목을 <살의 길>이라고 불린 데서 알 수 있듯이 살의 진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것이 어떤 '살'의 길인지 들여다보자. 길은 사람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길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길 위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다녔을 것이다. 나그네에서부터 장터로 나가는 아낙네, 일하는 농부들, 통학하는 학생들, 소식을 전하는 우편배달부 등등. 길은 사람 때문에 막혀졌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화면에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길이 엄연히 '인생의 메타포'로 기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측하건대 작가는 '인생은 순례'라는 마음으로 <살의 길>을 표현한 것 같다. 그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시작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길"로 이루어진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실제로 그가 표현하려고 한 것은 우리의 인생여정을 알 수 있다.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는 것처럼 삶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시작되는가?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도 두가 각자의 미래에 대한 무언가를 갖고 살의 길을 가고 있다." (작가 노트)

단테의 '신곡', 호머의 '오디세이', 버질의 '아이네이스', 존 번연의 '천로역정',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



이영욱, 물의 길 2001-3, 39.8x116cm, 캔버스에 유채

의 모험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여행, 항해, 탐험, 순례, 개인적 방랑으로 구성된다. 인생의 여행이란 마치 공중 폭예사가 그베를 떠나 맞은편에 있는 다른 폭예사의 손을 잡기 위해 공중에 떠 있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위험과 긴박함, 불확실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다. 미지의 세상에서 낯선 대상과의 만남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르러면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냇가를 치러야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을성 많은 '천로역정'의 주인공처럼 앞으로 가는 일뿐이다.

여행의 마침표는 사람이 찍는 것은 아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다가 실족하고 시험 드는 모습이 역시 길위의 삶과 같다. 작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힘겨운 발걸음을 내밀고 또 내밀으면 저 멀리 하늘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나타내는 길은 천상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셈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이 단순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무의미한 과정만은 아닐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

에 의하면, 지상생활은 기추장스런 길림들이거나 우리가 영원히 머물만한 완성된 나라가 아니다. 나 자신을 좀 더 단단히 성숙시키는 곳인 동시에 혹시 어떤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면, 그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부축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현실이란 유진 피터슨(Jugene H. Peterson)의 표현처럼 "형체도 갖추지 못한 쇠붙이를 두드려 쓸모 있게 만드는 대장간"같은 곳이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일은 계속된다. 그곳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희의 <삶의 길>은 돌부리와 자갈, 그리고 진흙과 거친 땅으로 얼룩져 있다. 순례의 길이 결코 여의치만은 않다는 이야기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인생은 뜻대로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이 더 많고 괴롭고 힘든 일이 더 많다. 만족보다는 후회가 더 많고 자신감보다는 좌절감이 빠지기 쉽다." 그의 말처럼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 크게 낭패를 보기도 하고 피곤에 지쳐 밤바닥에 털썩 주저앉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장도에 올랐다가 뜻밖의 일 때문에 놀라거나 난관을 겪는다. 그러나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고난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영욱, 삶의 길 2001-6, 72.7x116.8cm, 캔버스에 유채

관문임을 배운다. 여행에서 좌초와 실종이란 있을 수 없다. 시련과 역경은 순례자라면 이미 대비하고 있어야 할 덕목과 같다. 그가 목적지를 '어떤하게' 처리하고 대신 길을 '또렷하게'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를 항구로 신속히 떠밀어준다. 성경의 구절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시 107:30) 성 어거스틴은 이 땅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순례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일갈한 적이 있다. 그들이 떠나온 본향을 그리워하며 그곳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순례자는 소로이든 대로이든, 순탄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길을 통해 목적지에 이른다. 순례자는 지금 이 순간의 만족보다 미래의 만족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힘든 것을 참아낼 수 있다.

만약 순례자가 길을 잃는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된다. 물론 이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고통은 궁극적인 것도 아니고 최종결론도 아니다. 길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여행에서 실족하고 만다. 그림은 우리에게 세상속에 일하고 지치고 고통을 당하며 죄를 짓는 중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란 사실을 환기시켜주는 것 같다. 그림의 주인공들은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이지는 부차적이다. 그들이 복된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듯 진정한 기쁨은 사소한 일의 짐착에 있기보다는 복된 나라를 갈망하며 정해진 길을 부단히 걸어가는데서 얻어진다. 미래에 있을 더 좋은 영광이 여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늦추거나 멈출 수 없다. 마치 우리를 위해 놓여진 길잡이 없었는가?



서성복 인문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화의 발자취', '켄트워드의 거대한 상상력', '미국의 타지다움', '백수근', '켄트워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두리 미술 100년'이 있다.



이영욱, 물의 길 2001-3, 39.8x116cm, 캔버스에 유채